

• 풍향계 •

비싼 R&D 장비 함께 쓰면 '기쁨 두 배'

'꼭 필요하지만 값이 비싸 개별적으로 구입할 수 없는 고가 R&D장비를 함께 쓰면 얼마나 좋을까.'

대덕밸리 벤처업체에 고가 연구개발 장비를 공동 활용하는 바람이 불고 있다. 그 주인공들은 대덕밸리 벤처기업 '유니플라텍'과 '케이맥' 그리고 '과학기술분석센터' 등이다. 이들 기업들은 R&D가 생명인 이웃 벤처기업들에게 자체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한다고 밝혔다. 장비를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면 연구개발 중심인 대덕밸리 벤처기업들의 특성상 비용뿐만 아니라 기술 네트워크 구축 등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덕밸리 반도체 소재 전문 벤처기업 유니플라텍(대표 강석환)은 '플라즈마 이온주입기'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 장비는 반도체·금속·폴리머 등의 표면 물성개선에 적용되는 것으로 자그마치 20여억원 상당의 고가장비다. 이 장비를 이용하면 질소·산소·메탄 등 비금속 이온에 알루미늄·티타늄·카본 등 금속 이온을 주입해 소재의 특성을 바꿀 수 있다.

특히 이 장비는 처리용량이 40kW급으로 이온주입 장치로 국내 최대용량일 뿐만 아니라 기존 장치보다 크기도 수십 배에 달하며 3차원 입체표면의 물성도 변화시킬 수 있다. 최근 3개월간의 장비셋팅 작업을 거쳐 현재 사용 준비가 완료된 상태다. 사용은 가동에 필요한 전기료 정도만 지불하면 된다.

강 대표는 "이제 나홀로 성공하는 시대는 지난 것 같다"며 "대덕밸리 벤처기업들이 이 장비를 함께 활용함으로써 대덕밸리가 공생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과학기술분석센터(대표 구자룡) 역시 식품, 축산물, 비료에 관한 분석기 및 시험장비 등을 개방하고 있다. 실험·분석 대행 전문 업체인 이 회사는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고가 시험 장비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장비 사용 시 기본적인 실비를 지급하면 되며 장비사용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고 회사 관계자는 밝혔다.

이 회사는 현재 100여종의 최첨단 분석기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비료출하전·수질 검사기관과 사료품질검정 인정기관으로 공인 받았다.

대덕밸리벤처연합회 이인구 국장은 "고가 연구개발 장비를 공동 이용함으로써 비용절감은 물론 연구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대덕밸리의 800여 기업들이 각종 정보 및 시설인프라를 공유하면 적지 않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 박용성 회장 특강



▲ 박용성 회장

"요즘 젊은 학생들은 우리시대의 영웅을 꼽으라고 하면 연예인과 운동선수를 지칭한다. 이제 기업인이 우리시대의 영웅이 되는 시대를 만들어 가야 한다."

충청하나은행과 대전상공회의소가 지난

달 22일 개최한 '2003 기업 경영인 신년 간담회'에서 대한상공회의소 박용성 회장은 '우리시대의 영웅론'이란 특강을 통해 '기업인이 영웅 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눈이 오는 곳도 날씨에도 불구하고 대전지역 금융계와 경제단체, 기업인 등 200여명이 참석하는 등 성황리에 열렸다. 박 회장은 우리나라 기업의 상황과 노사개혁, 주5일 근무제, 전문경영인의 역할 등에 대해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내외적 상황에 상관없이 너무나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경영을 해 오고 있다"며 "이는 기업의 생존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기적인 비전과 전략에 의해 움직이는 기업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과 철저한 목표전략하에 기업을 경영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며 과거의 경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경영자의 역할에 대해 과거의 '나를 따르라'는 방식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선장'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김대중 정부가 추진해 왔던 4대(공공, 기업, 노사, 금융)개혁에 대해 기업과 금융은 상당부분 개혁이 이뤄졌으나 공공과 노사부문은 개혁의 길로 들어서기엔 아직 멀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IMF 이후 사회 전반에 불어 닥친 구조조정이 단지 사람을 자르는 것으로 잘못 인식 운영돼 왔다"며 "진정한 구조조정은 살아남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풍향계 •

EVA 회장에 우린정보 박성열 대표 선임



▲ 박성열 회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출신 벤처기업들의 친목 모임인 EVA는 최근 정기 모임을 갖고 신임 회장에 우린정보 박성열 대표를 선임했다. 박 신임 회장은 1978년부터 23년간 ETRI 전산개발부장과 정보기술개발단장, 기획부장, 슈퍼컴퓨터센터장 등을 역임한 뒤 2000년 경영솔루션 전문 업체

인 우린정보를 창업했다.

EVA는 지난 96년 13개사로 결성됐으며 현재 237개 회원사가 있다. 회원사 간 정보교류 등을 위해 매월 1차례 이상 정기 모임을 갖고 있으며 친정인 ETRI와도 공동세미나 및 공동전시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신기술의 산업화를 꾀하고 있다.

박성열 신임회장은 "ETRI 출신 기업인들이 사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구심점 역할을 할 것" 이라면서 "다양한 친목 사업을 벌일 생각" 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회장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미국 Auburn 대에서 산업공학으로 박사를 받은 후 지난 78년부터 2000년까지 전산개발부장, 정보기술개발단장, 기획부장, 슈퍼컴퓨터센터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2000년 창업했다.

• 신제품/신기술 •

음성인식 단어학습 CD 출시



영어 발음을 게임 하듯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기초 단어를 학습할 수 있는 음성인식 애니메이션 기초 단어학습 CD 타이틀이 출시됐다.

패턴인식 전문 기업인 한국인식기술(대표 마 천)은 음성인식 기반의 '글 깨침이' 라는 캐릭터가 함께 하는 '글눈이와 떠나는 하이! 영어세상' 이라는 상품명의 기초영어학습 프로그램을 출시했다.

제품에는 '단군 이야기', '고주몽 이야기',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등 재미있는 한글 및 영어동화 3종 6편과 초등학생 수준의 기초단어 350여개가 수록돼 있다. 이 제품은 마우스와 함께 '말' 로 명령을 내려도 보고자 하는 화면으로 자동 전환되는 음성인식기능이 탑재돼 있어 학습 편의성을 도모한 점이 특징이다. 그동안 시중에 시판되는 대부분의 기초학습프로그램은 이야기나 학습을 '마우스 클릭' 만으로 진행하도록 돼 있다.

이 제품은 CD에 수록된 350개의 기초 영어 단어마다 남자, 여자 원어민의 발음을 들려주어 발음청취, 반복학습이 가능하고, 학습자의 발음수준이 점수로 환산되기 때문에 2인 이상이 활용하면 '영어발음 잘하기 게임' 도 즐길 수 있다.

문의 : 042-471-1888, 02-3274-0981

커미조아, DAS 패키지 출시



디지털계측 제어기업 커미조아(대표 민경훈)는 모션제어 전용보드를 포함한 고성능

Compact PCI 기반 DAS제품을 출시했다. Compact PCI는 PCI의 진보된 인터페이스 기술로 확장성과 안정성, 호환성 등이 우수하고 산업용 및 전문적인 계측 시스템의 최적 솔루션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에 출시된 Compact PCI DAS 패키지는 아날로그 입출력 보드와 디지털 입출력 보드, 모션 제어 전용보드 등 산업 자동화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핵심모듈을 모두 Compact PCI 기반으로 개발, 패키지화한 것이다. 이 제품은 최대 6.5MHz 대역의 펄스를 자유자재로 생성해 스텝모터와 서브 모터를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으며 사다리꼴 및 S-커브 가감속 속도 프로파일 지원과 속도의 연속성을 나타내는 보간 기능을 제공해 속도나 위치를 구동 중에 보정할 수 있다.

특히 기존 외국제품의 성능을 능가하는 Compact PCI 기반의 모션제어 전용보드는 자동화 현장에서 그 성능을 입증 받는 등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문의 : 042-861-3301